

‘민식이법 시행 1년’

광주 스쿨존 사고·과속 오히려 늘었다



학교 주변 교통안전과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법 시행 이후 광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와 과속 단속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의 체계적인 점검·단속과 교통안전 시설 확충을 비롯한 세심한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운전자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성숙한 질서 의식으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경찰청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적용된 지난해 3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41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비교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46%증가
카메라 173대 중 89대 미검증 ‘과속 단속 못해’
안전 운전과 사고 방지 시설물 확대·점검 필요

특히 지난해의 경우, 민식이법 적용 2년 전인 2018년보다 스쿨존 교통사고가 46%(19건) 늘었다.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28건 ▲2019년 40건 ▲2020년 47건이다.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스쿨존 과속도 해마다 늘었다. 과속 단속 현황은 ▲2018년 1만 2187건 ▲2019년 1만 6980건 ▲2020년 2만 27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최다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를 기록한 지역은 ▲광산구 정암초등학교 (3595건) ▲서구 만호초등학교(3204건) ▲남구 송원초등학교(3074건) ▲서구 주월초등학교(2046건) ▲동구 산수초등학교(1483건) 순이다.

스쿨존 내 시설 강화도 미흡한 실정이다. 광

주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중 절반가량이 벽통으로 전락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속도 오차율을 점검하는 인수검사를 거쳐 정확도를 인증받아야 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에 설치된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173대 중 89대에 대한 인수검사가 끝나지 않아 단속이 쓰이지 못한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에만 카메라가 104대가 새로 설치됐지만, 카메라 인수검사는 45건에 그쳤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과속 단속 카메라 30대에 대해 인수검사를 마칠 것이다. 나머지 59대 검사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



획이다”고 밝혔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장은 “단속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는 과속방지턱, 노란색 안전 표지판 등 어린이 보호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늘려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주·정차 근절과 규정 속도 준수가 필수다. 스쿨존 구역에서 정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한국에너지공단 특별법 통과, ‘김영록 전남지사 관록·독심 통했다’

영암 미암면 ‘구절초 100리길 조성’...명품 숲속 트레킹코스

국회 상주 여야에 법안 필요성 설명
쟁점 풀기위해 광폭행보 협조 끌어내

김영록 전남지사의 관록과 독심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발휘됐다.

재선 국회의원이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인 김 지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제정 과정에서 그간 쌓아온 국회 내 다양한 인맥을 총동원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 내내 국회에 상주하면서 법안 통과를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통과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법안 발의 후 지속적인 노력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과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김 지사는 그때마다 여야를 넘나들며 특별



김영록 전남지사가 25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을 위한 향후 추진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법 제정과 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보폭을 넓혔다.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 쟁점이 일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산자위

국회의원 등을 만나 매듭을 풀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달 15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한국에너지공과대학 3월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을 이끌었고, 상임위 통과를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광폭행보를 보였다.

김 지사는 법사위 심사 시 야당 지도부, 법사위 위원장, 간사 등과 잇따라 면담하고 법안 통과를 요청했으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을 염원하는 호남권 민심을 전달했다.

결국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개교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 지사는 25일 “전남의 핵심 현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국회 통과와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도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기업·정치권 등과 협력을 강화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글로벌 톱10 공과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영암군 미암면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구절초 100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암면 구절초 100리길은 영암군의 ‘기(氣)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기획된 사업이다.

휴양림과 연결해 있는 임도와 산책로를 활용, 특색있고 아름다운 명품 숲속 트레킹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암면은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자연휴양림 내 40km의 임도와 산책로 법면에 구절초 씨앗을 파종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2단계 사업으로 허브와 구절초 씨앗 추가 파종과 함께 밤나무 묘목 1000여 그루를 심었다.

향후 3단계 사업으로는 구절초와 허브, 밤나무 묘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100리길 중간중간에 스토리가 담긴 안내문을 설치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토요일은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슬기로운
집콕생활!

온라인

위드 코로나 시대! 올해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즐겨주세요

2021 영암왕인문화축제

On-Line Yeongam Wangin Culture Festival 2021

4. 1. 목 ~ 4. 16. 금

www.왕인문화축제.com

YouTube 영암왕인TV

왕인ONTACT

- 특집 다큐 ‘왕인박사 랜선으로 일본가요!’
- 왕인박사 학술강연회
- 제31회 왕인박사 추모 한시지상백일장
- 천인릴레이 천인천자문
- 집콕놀이! 왕인키트
- 집콕! 챌린지
- 집콕ON! 글로벌 왕인 홍보단
- 왕인박사 추모 헌다례와 문화 강연

기찬영암ONTACT

- 유튜버와 떠나는 3인 3색 랜선 영암여행
- 기찬영암 브이로그
- 영암여행 온라인 사진·영상 공모전
- 혜택 가득! 기찬영암 라이브 커머스
- 온라인 영암 마켓
- 온택트 영암예술무대
- 온택트 개막콘서트
- 공개방송 영암온에어 ‘즐거운 오후 2시’ (11개 읍·면)
- 온택트 폐막행사

영암군 YEONGAM-GUN 주관 |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문의전화 | 061-470-2347